

# “흥어는 전라도 정체성 깃든 음식이죠”

문순태 작가, 시집 ‘흥어’ 발간  
“삭힘은 썩는 것 아닌 거듭남 의미  
흥어의 정서·미학 되새겼으면”  
다음달 14일 영산포서 출판회

문순태 소설가(84)는 ‘가장 전라도적인 작가’다. 전라도의 한(恨)을 오랫동안 천착해 미학으로 승화시켰던 우리시대 남도가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웅숭깊은 전라도 정서와 맛깔스러운 남도 언어를 매개로 민중의 삶 속에 드리워진 아픔을 탄탄한 서사로 형상화했다. ‘정소리’, ‘철쭉제’, ‘백제의 미소’, ‘타오르는 강’(대하소설)은 남도를 배경으로 그려냈던 가장 전라도적인 작품이다.

문순태 소설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흥어’다. 그를 취재할 때 또는 일상에서 만났을 때, 작가는 흥어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다. “흥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전라도의 정체성이 깃든 음식”이라고 말한 데서 보듯, 작가에게 흥어는 복합적인 의미와 상징이 결합된 ‘전라도 그 자체’였다.

문 작가가 최근 흥어를 모티브로 시집을 펴내는 길을 걷는다.

모두 100여 편의 작품이 담긴 ‘흥어’(문학들)는 흥어 예찬이자 종합적인 흥어 인문학서라 해도 무방하다.

“어렸을 때부터 흥어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흥어가 안 떨어질 만큼 즐겨 먹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흥어 맛은 깊이를 더하는 것 같아요.”

흥어를 주재료로 한 음식의 가치도 많다. 흥어삼합을 비롯해 무침, 탕, 전, 튀김, 건흥어, 생회 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튀전요리, 찜, 불고기삼합도 빼놓을 수 없다. 문 작가에 따르면 ‘껍질로도 목을 씹서 먹을 수 있고 라면에 흥어를 넣어 끓여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가히 ‘흥어 셰프’라도 될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작가는 “지난 3년 코로나로 집에 불박히 지낼 때 흥어도 많이 먹고 관련 시도 썼다”며 웃었다.



담양 생오지 ‘문학의 집’에서 포즈를 취한 문순태 소설가.

그가 흥어 시집을 발간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잊을 만 하면 소환되는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을 때면 “흥어의 맛은 들쭉치고 흥어에 내재된 전라도적인 정서와 미학을 시로 그려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작품들을 읽고 나면 문 작가가 왜 흥어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흥어를 전체 시집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이해가 간다.

특히 부레가 없는 흥어를 낮은 땅에 엮드린 민초에 빗댄 표현과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흥어 숙성과정을 한의 미학으로 승화한 비유는 절로 수긍이 간다.

“너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아니다/ 짓밟힌 민초들의 울부짖음, “오래 삭힐수록 더 날카롭게/ 되살아나는”, “전라도의 힘”은 남도와 흥어의 친연성을 그만의 어법으로 풀어낸 절창이다.

그러나 가장 압권이면서 오랜 울림을 주는 작품은 작가 자신을 흥어에 동일시한 시다. ‘내 몸에서 흥어 냄새가 난다’라는 시는 작가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작품론적인 관점에서 궁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아내는 내가 늙어 갈수록/ 흥어 냄새가 난다고 한다/ 이 풍진 세상 너무 오래 살아/ 어느덧 발효

가 시작된 걸까/ 떠날 시간 다가온 걸까/ 낙엽으로 바스라기 전/ 의로운 여정 끝나고 나면/ 향기 품을 수 있을까/ 이 몸 발효되고 나면/ 또 다른 내일 꿈꿀 수 있을까”

또한 이번 시집에는 영산포를 형상화한 11편의 작품도 수록돼 있다. 흥어집산지이며 흥어거리가 있는 영산포를 배경으로 한 시와 흥어장수 문순득이 풍랑을 만나 필리핀 등 동남아를 떠돌다가 우이도에 돌아와 표류기를 쓰게 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작가는 흥어의 삭힘을 인간의 거듭남과 연계해 재차 강조했다.

“삭힘은 어떤 사람에게도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닌 거듭남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오늘의 시대, 그 삭힘의 미학을 한번쯤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시집 발간 출판기념회가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나주 영산포 어울림센터에서 열린다. 전속 박상희·이준숙 시인의 흥어 시낭송과 ‘문순태 문학인생 60년’ 영상, 토코쇼 ‘시와 흥어의 만남’ 등이 예정돼 있다. 흥어축제가 열리는 5월 5일에는 영산포 축제장에서 작가가 참석해 시집 판 사인회도 열린다.

/글·사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총 맞고도 불사조 주인공 없어 카지노, 한국형 누아르라 자부”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 최민식

필리핀 카지노 왕 연대기 그려  
선과 악 경계 구분 짓지 않고 연기  
평범한 사람도 악행 저질러  
인간의 다중성 표현하고 싶었다



배우 최민식이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에서 배 나온 옆집 아저씨 같지만, 두둑한 배짱 하나로 필리핀 카지노 업계를 접수하는 카리스마를 뽐내었다.

24일 최민식은 인터뷰 내내 ‘카지노’에서 연기한 차무식처럼 사람 좋아 보이는 너털웃음을 지으면서도 작품 이야기에선 베테랑 연기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목직한 대답을 내놨다.

‘카지노’는 필리핀에서 카지노 왕이 된 남자 차무식의 연대기를 그린 작품이었다. 최민식은 이런 비범해 보이는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의외로 ‘평범함’에 포인트를 뒀다고 했다.

그는 “선과 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인간 내면에 욕망을 좇다 보니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늙어 빠지듯 흘러갔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다중성이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민식은 무엇보다 ‘카지노’는 연출자와 배우들이 시험공부 하듯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애착이 크다고 했다. 필리핀 촬영 현장은 연일 회의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사랑과 이별”(1997) 이후 오랜만에 도전한 드라마 촬영은 어땠을까. 최민식은 드라마는 영화와 달리 촬영 분량이 많은 데다 비용 문제 등으로 제작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해외 촬영의 특수성 때문에 아쉬움도 남는다고 했다. 게다가 필리핀 출국 직전 코로나19에 걸려 후유증을 겪으며 더위 속에서 촬영하다 보니 힘에 부쳤다고 했다.

최민식은 “상당도 못 할 분량을 하루에 찍었다. 1차자 적으로 아쉬운 건 나다. 연기를 보니 ‘내가 너무 험겨워했구나’라고 느껴졌다”며 “서사도 너무 많이 부딪쳐서 좀 더 아이디어를 해야 했더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과욕을 부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해외에서 ‘카지노’가 호평받은 데 대해서는 “한가지 자부하는 건 서양의 누아르를 흉내 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총을 쏘다 순식간에 쏘고, 총격전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원래 사고는 순식간에 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외국 사람들도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민식은 ‘카지노’를 계기로 OTT 시대로 들어서면서 바뀐 시청 형태 등을 체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인으로서 극장에 대한 애정도 숨김 없

이 드러냈다.

그는 “팬데믹으로 플랫폼 형태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몰아보기 같이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 있다”며 “그래도 난 극장이 좋다. 이걸(OTT)은 정지시키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재미없으면 꺼버린다. 극장은 돈도 아깝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콘텐츠를 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교감하는 극장 냄새가 좋다”며 웃었다.

1989년 드라마 ‘야망의 세월’로 데뷔한 최민식은 올해로 연기 인생 35년 차다.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배우’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배우로서 욕망이 있다고 했다.

최민식은 “아직도 욕심이 많다. 로맨스, 중년의 멜로를 하고 싶다”며 “젊은 남녀의 상큼한 사랑도 있지만, 어떤 중년들의 사그라지는 사랑. 절제해서 더 잔하고 아픈 그런 어른스러운 것들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너무 적극적인 이야기가 많다. 찢러 죽이고 썩 죽이는 이런 것은 지겹다. 서로를 포용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휴먼 스토리가 필요한 때다. 단편소설 같은 영화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 할리우드 영화 첫 100% 한국 로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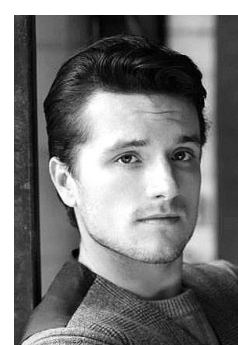
조시 허처슨 주연 SF 액션스릴러 ‘더 라스트 티켓’ 하반기 촬영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의 배우 조시 허처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 ‘더 라스트 티켓’이 할리우드 영화 최초로 모든 촬영을 한국에서 진행한다고 미국 프로덕션 세븐원세븐 필름스(7ONE7 Films) 측이 28일 밝혔다.

‘더 라스트 티켓’은 감옥에서 벗어난 마이크핀

(톰 호퍼 분)이 친구 로니(조시 허처슨)와 함께 대규모 강도 작전을 펼치던 중 한 여성에게 배신당하며 벌어지는 추적극을 그린 SF 액션스릴러다. 톰 호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엄브렐라 아카데미’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다.

연출은 유명 명품 브랜드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온



조시 허처슨

산티아고 마네스 모레노 감독이 맡았다.

세븐원세븐 필름스 측은 현재 모레노 감독을 비롯한 일부 제작진이 한국에서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인공 안야 역에는 한국 톱 배우가 낙점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영화는 하반기 촬영에 내년 하반기 40여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통 라온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삼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농성지점 062)361-4472~4	동운지점 062)528-2640~2	삼무동지점 062)372-3741~2
쌍촌지점 062)381-6551~2	동림지점 062)513-8521~3	버들지점 062)381-197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